



‘남원시 평생학습 성과발표회’ 성황리 마무리

남원시가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한 ‘제21회 남원시 평생학습 성과발표회’를 지난 26일 사랑의 광장에서 시민들의 호응 속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오늘의 평생학습,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관내 평생학습 학습자, 강사, 기관·단체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배움과 소통으로 하나 되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Day남원 아카데미에서는 웃음치료사의 토크콘서트가 열려 시민들이 웃음이 건강과 행복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직접 체험하고, 일상 속에서 웃음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 오후 1시부터 열린 기념식에서는 한 해 동안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 강사 및 학습자 11명에게 유공 표창이 수여되었으며, 수상자들은 시민들의 학습 참여와 배움의 기회를 넓히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 사회복지시설 방문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사회와 온정을 나누고자, 29일 사회복지시설인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을 위문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문방문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위문의 일환으로 방문하였으며, 직원 모두의 공감을 통해 자발적 모금으로 마련한 성금을 전달했다.

또한, 복지시설 운영에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기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무주관리소 관계자는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행사를 마련했다”면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랑나눔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시 백구면, 농특산물 전시·홍보 행사 추진

김제시 백구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7일 행정복지센터 인근 카페 주차장에서 백구면 농특산물 전시 홍보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맛있는 백구포도를 홍보하기 위해 유명한 애견 카페에서 진행했다. 전주와 익산 등 김제시 인근에 거주하는 방문객에게 포도를 맛보게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방문객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농산물을 맛본 방문객들은 “이렇게 달고 향긋한 포도는 처음이다”며 백구포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 최초 반려동물 동반 공공캠핑장 개장

임실 오수면에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오수반려누리·오수의견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전북자치도, 총 100억원 투입... 반려동물·관광산업 결합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전북 지역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문을 열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9일 임실군 오수면 금암리에서 반려동물 동반 ‘오수의견 국민여가캠핑장’ 개장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장식에는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심민 임실군수, 도·군의원, 반려동물 가족 및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새로운 지역 관광자원의 탄생을 축하했다.

이번 캠핑장 조성은 민선8기 김관영 도지사의 공약사업 중 하나로, 반려동물 산업을 전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전북자치도는 총 100억 원을 투입해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오수반려누리’와 ‘오수의견 국민여가캠핑장’을 조성했다. 이 사업은 반려가족에게는 새로운 여가 문화를, 지역에는 관광 활성화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오수의견 국민여가캠핑장’은 약 9,000㎡ 부지에 조성됐으며, 오토캠핑 데크 22면과 카라반 사이트를 포함



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위한 샤워실, 위생관리 시설 등 반려 가족을 위한 맞춤형 편의시설을 갖췄다.

캠핑장 인근에 함께 조성된 ‘오수반려누리’는 반려동물 교육·체험 공간으로, 반려 행동 교정, 미용교육, 반려문화 교육장, 전시실, 펫 목욕탕, 펫카페(10월 운영 예정), 넓은 운동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췄다. 이 공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반려동물과 함께 배우고 즐기는 복합 체험공간으로 운영된다.

/이만호 기자·임실=진흥영 기자

제7회 전국 진안향우 만남의 날 성료... 고향 사랑으로 뚝뚝 뭉치다

2025 진안홍삼축제 마지막 날인 지난 28일 ‘제7회 전국 진안향우 만남의 날’이 진안문예체육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재전진안군향우회(회장 윤석정)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전국 각지의 향우 1,200여명을 포함해 총 1,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기념식에서는 개회 선언과 내빈 축사와 함께 고향 진안발전에 기여한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진안인물상’은 차재철(안전면장), 정재용(용담면 부면장), 한효임(진안군청소년수련관장), 나수민(제1호 키르기스스탄 출신 이주여성), 박병영(진안고원융합회장)이 수상했다.

향우들에게 주어지는 ‘자랑스런 진안인상’은 송재영(재경군민회), 박창식(재경군민회), 김영수(부산), 고재형(익산), 황인옥(이천), 전병곤(오산), 유관호(대전), 송재현(전주), 임미영(전주), 이한국(군산), 이성엽(안산)에게 수여됐으며, 전주시의원 재임 시 용담댐 수몰민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추진에 기여하는 등 군정 발전에 힘써준 강동화 전북특별자치도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한, 향우들의 고향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기부행렬이 이어졌다.

이웃돕기 성금에 1,050만원(재전진안군향우회 1,000만원, 대전개인택시진안군향우회 50만원), 고향사랑기부금에는 재전향우회원 15명이 3,050만원, 대전개인택시향우회가 200만 원을 기부해 총 3,250만 원을 전달했다.

특히 재부산진안군향우회가 진안사랑장학재단에 후원금 100만 원을 기탁해 남다른 애향심을 보여주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소방서, 산불 대응 실전형 긴급구조훈련 실시

장수소방서(서장 한동규)는 지난 26일 장수군 장수읍 신무산 및 수분마을 일원에서 대형 산불에 대비한 실전형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전국적으로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산간지방이라는 장수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전북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실전형 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훈련에는 소방, 경찰, 군부대,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실제 산불 현장을 방불게 하는 상황 속에서 주민 대피, 초기 화재 진압, 산불 확산 차단, 긴급구조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소방서, 화재예방·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진안소방서(서장 김충국)는 29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화재예방 및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안전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화재 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주택용 소방시설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버스터미널 및 많은 군민과 관광객이 찾은 진안홍삼축제 현장에서도 홍보 활동을 펼쳐 보다 폭넓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주요 내용은 △추석 명절 화재 예방수칙 준수 당부, △화재 시 올바른 대피요령 안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독려, △기기를 화재 시 K급 소화기 사용 등이다.

진안소방서는 홍보 활동을 통해 군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화재 예방 분위기를 확산시켜 모두가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제 용지면,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캠페인 추진

김제 용지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5일 청소년지도위원회 및 지역사회보정협의체 위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정복지센터에서 용지초등학교 앞까지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 보호 의식 확산과 유해환경 개선으로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진행됐으며, 용지면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생활을 지도하고 청소년에게 유익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는 단체이다.

최병삼 지역사회보정협의체 위원장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